

2025

SU-대학혁신지원사업
웹소식지 vol.1

hel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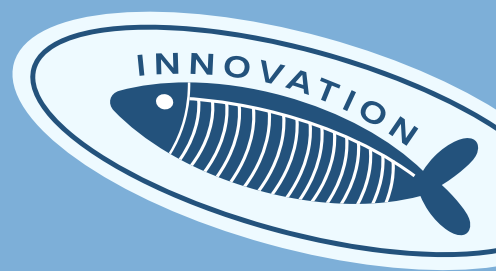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SU-대학혁신지원사업
2025 웹소식지 vol.1

contents

1. 삼육대-한성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재학생 홍보단 교류프로그램 작성자 / 권시은	3
2. AI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맞춤형 보완학습 작성자 / 정지원	6
3. 전공탐색 페스티벌 작성자 / 신유빈	9
4. SOS 멘토링 작성자 / 신서현	12
5. 삼육메이트 (새내기&적응 멘토링) 작성자 / 조혜원	14
6. 위드(With)프로그램 (학습공동체, 학습컨설팅) 작성자 / 황수빈	18



본 웹소식지는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재학생 홍보단인
「SU-PANEL」 구성원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세부 프로그램들을 살펴,
내용을 직접 구상 및 취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한 번의 만남, 두 배의 성장

작성자 권시은



삼육대학교와 한성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재학생 홍보단이 함께한 교류 프로그램이 지난 7월 29일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두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 홍보단이 만나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각자의 성과를 공유하며 상호 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교류는 실무 중심의 특강과 체험 활동뿐만 아니라, 학생들 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친목 형성을 통해 서로의 활동 방식과 홍보 철학을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홍보 글쓰기 특강 중
조별 퍼스널 브랜딩,
인터뷰 실습 활동



글쓰기의 핵심은 00이다?

이동영 작가와 함께한 홍보 글쓰기 특강

첫 번째 활동은 이동영 작가의 홍보 글쓰기 특강으로, 홍보단 활동에 필수적인 콘텐츠 기획 역량을 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님은 “우리가 하는 일은 홍보지만, 독자가 원하는 건 정보”라고 강조하며, 글쓰기 전 ‘어떤 반응을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습에서는 조별로 퍼스널 브랜딩 키워드를 도출하고 숫자를 활용한 자기소개를 구성했으며, 인터뷰 실습을 통해 사전 조사와 질문 설계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홍보단원들은 “실무에 바로 쓸 수 있는 팁이 많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강의 내용을 바로 적용해 보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특강은 글쓰기 기술을 넘어 홍보단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EXCHANGE

미래형 교육 체험

이러닝 스튜디오 견학과 XR PBL 스튜디오 VR 학습시스템 체험

오후에는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된 이러닝 스튜디오를 견학하고 XR PBL 스튜디오에서 VR 학습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보는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닝 스튜디오는 라이브 송출이 가능한 스튜디오형 강의실, 프롬프트가 설치된 셀프 스튜디오, 전체 공간이 크로마키로 구성된 버추얼 스튜디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수자의 강의 촬영뿐 아니라 홍보단의 카드뉴스 영상, 인터뷰 콘텐츠 제작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인프라입니다. 견학을 통해 실무형 콘텐츠 제작 환경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XR PBL 스튜디오 VR 학습시스템 체험에서는 홍보단원들이 직접 장비를 착용하고, 가상현실 기반 교육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체험하였습니다. 실제 수업 시나리오에 따라 구성된 VR 콘텐츠는 몰입감을 극대화하며,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경험 중심의 학습 환경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소감



권시은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3학번

이번 교류 프로그램은 홍보단 활동에 필요한 기획력과 표현력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쓰기 특강과 비교과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시각이 넓어졌고, 우리 학교의 우수한 시설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 프로그램을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활동에 큰 영감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신서현

영어영문학과 24학번

수패널 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글쓰기 특강도 듣고, VR 체험도 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감사합니다.

신유빈

경영학과 24학번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한성대학교 홍보단과 함께 교류활동을 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양교가 상호발전적인 관계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원

인공지능융합학부 23학번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재원으로 마련된 시설들이 이토록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2학기부터 도입될 VR 기기도 먼저 체험해보는 등 여러모로 신기하고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조혜원

동물자원학과 24학번

같은 분야에서 활동 중인 타대학 홍보단과 만나 각 대학의 홍보 방식과 활동 경험을 공유하며 정보를 교류할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황수빈

경영학과 21학번

수패널 활동을 통해 한성대학교 홍보단 분들과 함께하며 뜻깊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홍보 글쓰기 특강을 통해 홍보 역량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AI와 함께 하자!

작성자 정지원



입시를 무사히 마치고 꿈에 그리던 대학에
진학했지만, 막상 전공 수업을 듣다 보면 어쩐지
따라가기 힘들다. 전공책에 나오는 개념은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교수님의 강의 내용도 알 듯
말 듯 어렵기만 하다.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
수업에는 공부를 도와줄 시중 문제집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가르쳐 줄 과외 선생님도 없다.
자기주도학습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학 공부, 그러나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몰라
대학 공부가 어려운 당신에게. 걱정하지 마라!

기획처 IR센터가 준비한 AI기반 기초학력
진단도구가 있으니! AI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성적 향상은 물론 자신감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I기반 기초학력 진단 & 보완학습 시스템은 기획처 IR센터에서 제작한 기초학력 AI 프로그램으로, ‘풀리캠퍼스(Pulley Campus)’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풀리캠퍼스는 25년도 기준 전국 50개 이상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GPT-4.0 기반의 AI를 탑재한 플랫폼으로, 교수자가 손쉽게 수업을 설계할 수 있고 대학별 맞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프로그램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QR 코드를 스캔한 후 안내에 따라 로그인하고, 플랫폼 내 ‘진단평가’ 탭으로 이동한다. 이후 기초수학, 응용수학(미적분, 확률과 통계), 생명과학, 화학, 물리 중 학과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1차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한다. 전 과목을 응시할 필요는 없으며,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만 선택하면 된다. 진단이 완료되면 개인별 학습 보고서가 제공되고, AI 챗봇과 함께 부족한 영역에 대한 보완학습이 시작된다. 2차 진단은 2학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진단평가 외에도, 학생들은 ‘개념자료실’을 통해 영어, 의학, IT/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과목을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다. 영어, 의학 등의 글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과목에는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유튜브 학습 영상도 함께 제공된다. 개념자료실에서도 AI 챗봇은 언제나 함께한다. 학습 중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질문해보자. 개념 설명부터 예제 제작까지, AI 챗봇이 언제나 당신의 학습을 도울 것이다.

AI 기초학력 진단 & 보완학습 프로그램 내에는 위에 언급한 것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탑재되어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 진단뿐만 아니라 학습 역량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프로그램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기획처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왜’ 만들게 된 걸까? IR센터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제작 배경을 들어보도록 하자.



기획처 IR센터 김승옥 선임연구원 인터뷰

Q1.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와 함께 담당 업무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AI기반 기초학력 진단도구 및 맞춤형 보완학습 시스템」 구축 사업을 총괄 기획·운영한 선임연구원 김승옥입니다. 교육학 전문가로서 학생과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만족도 조사와 핵심역량 분석을 수행하며, 대학의 인재 양성 목표를 지원하고, 교육 환경과 질 향상을 위한 의사결정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 역시 이러한 업무의 연장선에서 진행되었는데요. 학과별로 요구되는 기초학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진단과목을 선택한 뒤 진단 문항을 구성하면서 난이도를 조율하는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실제로 시스템을 활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 인터페이스와 콘텐츠를 개선하였고, 맞춤형 AI 보완학습 콘텐츠를 최적화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 지속성과 기초학력 강화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Q2. 「AI기반 기초학력 진단도구 및 맞춤형 보완학습 시스템」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해당 시스템은 최근 학생들이 수학이나 과학 같은 기초학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 기초학력 진단도구 및 맞춤형 보완학습 시스템」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AI 챗봇이 실시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도록 설계했는데요. 여기에 개인별 수준에 맞는 콘텐츠까지 제공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대학 수업에 필요한 기초학력을 더욱 탄탄히 쌓고,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Q3. 그렇군요. 그렇다면 본 프로그램을 이용한 후 성적 향상 등의 구체적인 성과 사례가 있었나요?

올해 8월에 1차 진단이 완료돼 아직 본격적인 성과를 보여드리기엔 조금 이르나,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진행된 파일럿 테스트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테스트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이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진단 결과와 보완학습이 실제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AI 설명을 통해 시험 점수가 올랐고, 어렵게 느껴졌던 개념들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4.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인상 깊었던 경험을 몇 가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학교 특성을 반영해 문제를 구성하고, 적정 난이도를 찾기까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파일럿 테스트에 참여한 학생들이 “정말 도움 됐어요!”, “이 시스템 덕분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라고 말해줬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학생들의 이런 긍정적인 평가와 따뜻한 피드백 덕분에 저희도 더 열심히, 또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Q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해주세요.

「AI 기반 기초학력 진단도구 및 맞춤형 보완학습 시스템」이 여러분의 대학 생활에 든든한 학습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시스템이 단순한 진단과 보완학습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수강하는 다양한 교과목과 연계되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를 기대합니다.



나의 전공을 찾아! 전공탐색 페스티벌

작성자 신유빈



지난 5월 솔로몬 광장에서 열린
전공탐색 페스티벌을 기억하시나요?
여름 맛이 준비를 마친 햇벌이
따사롭게 내리쬐어 성큼 다가온
포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날씨도
화창해 더욱 활기찬 페스티벌이었는데요.
페스티벌 취재 내용들이 **우리 학우들이**
진로설계를 하거나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현장의
느낌을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전달하기 위해
각 학과에서 준비한 부스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았고, 그 내용도 알차 각 부스 운영진들의
인터뷰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페스티벌 이후
행사 담당자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참여규모와
반응, 향후 방향성 등 자세한 이야기도
나누어보았습니다. 20개 학과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약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던 페스티벌이었는데요.
만족도까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현장의 뜨거움을 느껴보시죠!



교무처 학사지원팀 담당자 인터뷰

Q1. 전공탐색 페스티벌을 개최한 목적이 무엇인가요?

행사를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홍보를 원하는 학과와 관심 있는 학과의 정보를 얻고자 하는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시장을 만들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Q2. 대상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1, 2학년 학생들이 주 타겟이지만, 사실상 모든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다전공(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과 전과를 고민하고 있거나 관심 있어 하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Q3. 학생들의 참여도는 어땠나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대략 1,000명 정도 참여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4.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땠나요?

만족도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5점 이상이 나온 것으로 보아 학생들에게 유익한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Q5. 전공탐색 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느낀 점을 학생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삼육대학교에서 단일전공으로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나의 전공도 좋지만 다전공 제도를 통해서 학생들이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졸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전공을 희망하거나,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너무 깊게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복수전공을 신청했다가 다시 단일전공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전과를 한 후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다면 다시 전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깊게 고민하기보다는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스 운영 학생 인터뷰

항공관광외국어학부 23학번 송채현 학생

Q1. 학부와 전공탐색 페스티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항공관광외국어학부는 중국어와 일본어 및 동아시아 문화지식을 바탕으로 항공관광 서비스의 전문성을 기르는 학과입니다. 전공탐색 페스티벌은 전과생,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을 비롯해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을 위해 학부를 소개하는 유용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Q2. 학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양어 및 항공 관광의 객실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객실승무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언어도 함께 발판 삼아 취업에 임하겠다는 생각으로 입학하였습니다.

Q3. 학부를 고민하는 학우에게 전공이나 조언 한마디 하자면?

매력적인 학부라고 생각합니다. 항공관광외국어학부를 통해 외국어와 서비스 관광 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혀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비스 매너 마인드뿐만 아니라 일본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를 꾸준히 학습하여 언어능력을 향상시킨다면, 취업 시 함께 활용하여 더욱더 좋은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심리학과 25학번 함채원 학우

Q1. 현재 전공을 왜 선택하게 되었나요?

과거에 이클래스에서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팀원들과 느끼는 결속력이 좋아서 상담심리를 전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Q2.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상담심리학과는 문과의 느낌이 강하지만,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과학적이기 때문에 문·이과 통합형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로를 끝까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일단 상담심리학으로 진학해 복수전공을 하시면 추후 다방면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융합학부 20학번 차승민 학생

Q1. 전공탐색 페스티벌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 학과를 소개하고 인공지능융합학부만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Q2. 현재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 세부전공으로 지능형 반도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에 대해 들어본 것은 많지만 전문적이고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궁금증으로 찾아보다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Q3. 전공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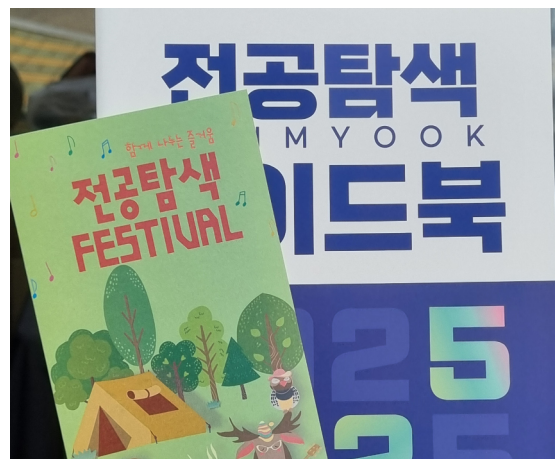
본인이 직관적으로 가장 끌리는 것을 선택해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Q4. 인공지능융합학부에 대한 자랑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융합학부에는 3개의 세부전공(인공지능공학, 지능형 반도체, 경영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또한, 복수전공 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학과 내에서 두 트랙을 동시에 전공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탐색 페스티벌 참여소감

페스티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분위기도 살펴보고 총 3개 학과(항공관광외국어학부, 인공지능융합학부, 상담심리학과)의 부스에 참여해 보았습니다. 각 학과의 부스에서는 전공에 알맞은 체험활동을 기획해 학과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항공관광외국어학부에서는 ‘제한된 시간 내 기내 안내방송 말하기’를 통해 객실 승무원 체험을 할 수 있었고, 상담심리학과에서는 ‘어항 속 그림 그리기’를 통해 현재 나의 심리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각각 전공의 특성을 살린 체험을 통해 현재 전공이 나에게 맞는지, 오히려 다른 전공이 나에게 맞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타 학과 전공지식은 알 기회가 없었는데, 커리큘럼과 진로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해당 학과 학생이 직접 전공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으며, 솔로몬 광장에 모여 여러 학과가 각 전공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다전공생과 전공선택을 앞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 학우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 행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에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공탐색 페스티벌 참여소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적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SOS 멘토링



작성자 신서현

삼육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높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지난 학기에 직접 참여했던 SOS 멘토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SOS 멘토링은 학사 경고자나 학업 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우수 학생이 멘토가 되어 총 6회 멘토링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목적

- 1 멘토링을 통해 학교생활과 학과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
- 2 기초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멘토링과 동기 부여를 제공하여 전공 학습 능력을 강화하는 것

운영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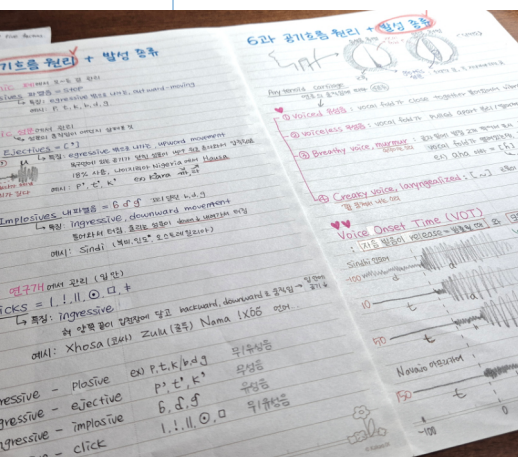
- 1 학과 차원에서 위기 학생과 우수 학생을 1:1로 매칭하여 한 학기 동안 총 6차시, 회당 50분 이상 멘토링 진행
- 2 활동 후에는 SU-Plus에 활동일지를 제출해야 하며, 멘토링 팀은 담당자 조율하에 원하는 상대와 매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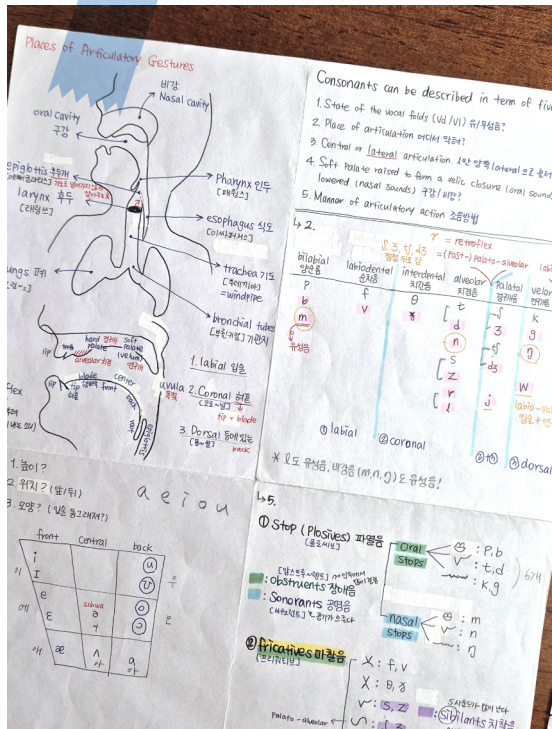
기대효과

멘토와 멘티가 함께 학습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래 학습자와의 소통을 통해 자아 개념을 키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혜택

멘티가 지난 학기 또는 복학 이전 학기 대비 성적 향상을 하였을 시, 담당 멘토와 해당 멘티에게 최대 200,000원의 장학금이 주어지며 활동 지원 및 수수료증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참여 학생 인터뷰(멘티)

Q1. 어떤 경로를 통해 SOS 멘토링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나요?

학교 홈페이지 행사 공지를 읽고 SOS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Q2. 주로 언제, 어디서 활동했나요?

당일 강의가 끝난 후나 공강 시간에 맞춰서 도서관 3층 토론실, 빈 강의실, 바울관 1층, 70주년 기념관 지하 등 다양한 곳에서 학습했습니다. 온라인(구글 미팅)을 통한 멘토링도 두 차례 진행했습니다.

Q3.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나요?

네. 공강 시간을 복습과 공부에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시험 기간이 한결 수월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공부하다 보니 책임감을 느끼고, 무엇보다 재미있었습니다. 같이 듣는 수업을 중점으로 공부하다 보니 모르는 것을 바로 해결할 수 있어 효율적이었고, 심리적으로도 든든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에 대한 적극성이 향상되었습니다.

Q4.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친구와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멘티는 멘토를 통해 공부에 대한 의지를 가질 수 있고, 멘토는 멘티에게 멘토링을 진행하기 위해 멘토링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얻어가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호보완적 관계를 맺고 함께 성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Q5.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또 참여하거나 주변에 추천하실 의향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네. 전공과목에 자신이 없거나 혼자 시험공부하는 것이 막막하고 의지가 약한 학생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멘토가 되어 수업 준비를 해보고 가르쳐주는 경험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Q6.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전공 공부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였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특히 원하는 사람과 매칭되어 같이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1학기 학교생활 중 제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멘토 참여 소감

이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적 향상 장학금이라는 뚜렷한 목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친구에게 설명하면서 스스로 학습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공 이해도가 깊어져 수업 시간에 자신감이 생겼고, 미루는 습관이 줄어들어 ‘벼락치기’가 아닌 꾸준한 공부 습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 효능감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은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성적 향상과 친목,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소중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이라 더 반가운 너에게” 삼육메이트

작성자 조혜원



삼육메이트 프로그램이란, 신입생 및 소외계층(편입생, 전과생, 유학생, 새터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멘토링으로, 이를 통해 대학생활 적응 및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 프로그램이다. 선후배 간의 교류를 통해 학교생활 정보, 학습 방법, 진로 방향 등을 공유하며 자기주도 역량과 소통 역량을 함께 계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새내기 멘토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적응 멘토링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리더(멘토) 및 메이트(멘티)는 1:1 또는 1:2의 형식으로 팀을 꾸려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삼육메이트 활동 소개

삼육메이트의 활동 유형은 크게 세가지로 학습 스터디, 대학생활 설계, 그리고 기타 여가 및 진로 활동으로 구분된다. 첫째, 학습 스터디 유형은 시험 공부, 공부 방법 안내, 과제 피드백 등과 같이 학업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대학생활 설계 유형은 수강신청 방법, 시간표 구성, 전공 선택 및 학교생활 노하우 전달 등 신입생의 대학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기타 활동 유형에는 동아리, 스포츠, 문화생활 공유와 더불어 교내외 활동, 진로·취업 정보 나눔, 자격증 준비와 같은 실용적 조언까지 포함한다. 학교일정 혹은 구성원들의 필요에 따라 매주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 세부사항 및 참여 혜택

삼육메이트 활동은 총 6차시로 구성되며, 회차별 기간에 맞춰 멘토와 멘티가 함께 활동한 뒤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수료로 인정된다. 일지의 경우, 리더와 메이트 모두 각각 작성해야 하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권장된다.

삼육메이트 활동에 참여하면 의미 있는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리더의 경우, 말는 멘티의 수에 따라 장학금이 차등 지급되며 MVP 인증점수(Mission 영역, 100점) 또한 지급된다. 메이트의 경우 SU-Point 9,000점이 지급되는데, 해당 혜택은 삼육대학교 내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각 팀마다 매 차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 또한 지급되어 더 원활하게 팀원들과 소통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수료 시 발급되는 수료증을 통하여 본인의 활동을 인증할 수 있다.

이 활동은 단순히 멘토와 멘티가 만나 교류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배경과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협력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정기적인 만남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힘이 길러지며, 이 과정은 낯선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적응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준다. 삼육메이트는 익숙한 틀을 벗어나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으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함께 방향을 찾아가는 이 여정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리더 인터뷰 동물자원과학과 2학년 윤성무

Q1. 이번 학기 삼육메이트 프로그램에서 리더로 참여하게 된 계기와 동기가 무엇이었나요?

삼육메이트 프로그램에 대해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후배에게 먼저 제안하는 게 조심스러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후배가 함께 참여해보자고 먼저 제안했고, 이후 다른 후배 한 명도 함께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었습니다.

Q2. 삼육메이트 활동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이번 삼육메이트 활동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선후배 간의 친목'이었습니다. 저는 매시간 리더로서 학교생활을 이야기 삼아 분위기를 풀어나갔고 자연스럽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서먹했던 선후배 사이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져, 삼육메이트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마주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더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뿌듯했습니다.



Q3. 이번 활동을 통해 본인이 느낀 성장이나 변화가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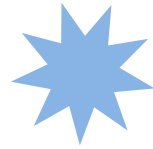
이번 활동을 통해 단순히 후배들과 가까워진 것을 넘어, 인간관계 전반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후배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조금씩 감을 잡게 되면서, 다른 동아리나 외부 활동에서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는 법을 배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Q4. 신입생과의 소통에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나 노력한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선배라고 해서 특별히 권위를 내세우거나 '더 잘 안다'는 식의 말투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존중과 배려의 말투로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후배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진심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Q5. 삼육메이트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활동이 끝난 뒤, 후배들의 제안으로 함께 제명호에 올라간 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비밀 이야기도 나누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삼육메이트를 넘어 진짜 '사람과 사람'으로 가까워질 수 있었던,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메이트 인터뷰 동물자원과학과 1학년 김가빈, 안려원

Q1.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나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김가빈: 선배가 친구를 통해 삼육메이트 활동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침 학교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고 싶던 시기라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고,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대학생활을 더 알차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려원: 처음에는 친구의 추천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삼육메이트에서 하는 활동, 누구와 하는지 등 삼육메이트를 하는 취지와 활동을 들어보니 저에게도 선배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와 앞으로의 학교생활, 대학생의 공부 꿀팁 등을 새롭게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Q2. 처음에 가장 걱정되었던 점은 무엇이었으며, 그 점은 어떻게 해소가 되었나요?

김가빈: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라 처음 만나서 선배와 어색하지 않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배가 먼저 다가와 편하게 대해 주시고, 활동 내내 세심하게 챙겨주신 덕분에 금방 적응하여, 지금도 선배와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려원: 처음에는 아무래도 함께하는 리더 선배와 친해지지 못하고 계속 어색한 상황에서 메이트 활동을 이어가는 부분이 가장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선배와 친구 셋이서 해보니 처음에는 걱정대로 어색하긴 했지만 몇 차례 지나면서 선배가 분위기도 잘 이끌어 주시고 친구도 그 분위기에 잘 적응해 저도 점차 메이트 활동에 편안함을 느끼며 잘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3.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생활에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김가빈: 무엇보다도 선배를 통해 학교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들 수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제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등 많은 것들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었고, 선배도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해주셔서 더 유익했습니다. 덕분에 학교생활에 대한 걱정도 줄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안려원: 삼육 메이트 활동을 통해서 저는 리더 선배와 자연스레 친해지며 리더 선배뿐 아니라 리더 선배를 통한 다른 선배들과도 자연스레 친해질 기회가 있었으며, 선배의 조언을 통해서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대충 어느 부분이 나오며 어디를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팁을 들어서 시험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친구와도 더욱 친해져 모든 것이 어렵고 불안했던 나의 첫 대학 생활에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Q4. 내년엔 신입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가빈: 학기 초반에는 학교생활이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삼육메이트는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배에게 궁금한 점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고, 동기들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어서 신입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안려원: 저는 메이트 활동을 통해서 어색하고 어렵던 초반 대학 생활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올 신입생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육 메이트 활동을 통해 대학생활에 대한 조언을 얻어 도움을 받고, 친해지고 싶은 선배와의 친분을 쌓았으면 좋겠기에 추천합니다.



함께 성장하는 힘, 위드(With) 프로그램

작성자 황수빈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은 학생들의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학습공동체와 학습컨설팅으로 구성된 ‘위드(With)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학습지원을 넘어서, 자기주도 역량과 협업 능력, 소통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는 종합 학습 성장 플랫폼이다.

이 프로그램은 각자의 학습 스타일과 목표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방향적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과 차별화된다. 참여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 주제를 정하고, 팀을 구성하며,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활동 계획을 세워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학생 혼자가 아니라, 전문 학습컨설턴트와의 1:1 상담과 교육혁신원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다.

전공능력향상
With 프로그램 **2025-1학기 12주 과정**

학습공동체 大모집

신청기간: 2025. 3. 17(월) - 3. 30(일)

참여대상
2025-1학기 재학생
*휴학, 졸업유예, 추가등록, 중복신청 불가

학습공동체 주제

유형	세부	내용
성적 향상	전공	학과 전공역량 및 성성향상
	교양	교양 과목 성적향상
	교직	교직 임용 준비 및 성적향상
자기개발	아학	아학 공인인증시험 응시
	공모전	교내/외 공모전, 경진대회 출품 준비
	논문	논문 작성 및 연구
자격증	자격증 취득 준비	

활동기간 및 이수조건

① 활동기간: 3. 31(월) ~ 6. 20(금)
- 총 12주 / 12회차 진행
- 비대면 오리엔테이션 참여 1회차 인정

② 결과보고서 6. 21(토) ~ 6. 25(수)

참여혜택

① 스티디룸 및 다과 지원
② 수료 시 장학금 및 수료증 발급
※ 우수 수료 시 추가 장학금 지급

신청방법

※ SU-Plus 비로그인접수시스템
QR로 신청하기

※ 참가신청서에 꼭 체크하기해주세요!!

교육혁신원

교육혁신원
교육지원센터

대학혁신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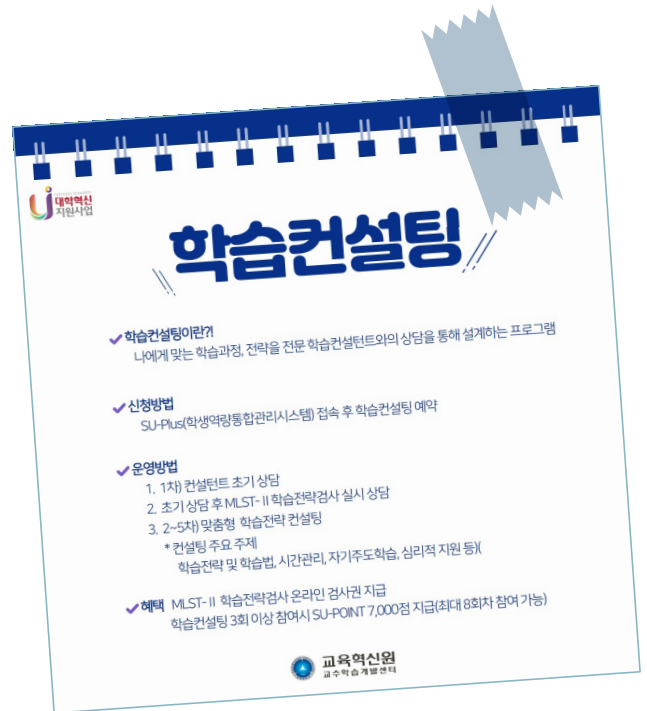
With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학습공동체는 같은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정기적으로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혼자만 잘하는 세상이 아닌,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세상을 준비하는 실습의 장이다. 전공과 교양, 자격증, 어학, 공모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함께 공부하며 성취감을 높여가는 과정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학습컨설팅은 1:1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생 스스로 학습 방향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가 도와주는 대화 기반 지원 시스템이다. 학습을 잘하고 있지만 불안한 학생, 방향을 잃은 학생 모두 자신에게 꼭 맞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

교육혁신원 담당자 인터뷰

Q1. 위드(With)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 프로그램은 삼육대학교 교육혁신원이 학생들과 함께 성공적인 졸업을 위해 ‘러닝페이스 메이커’로서 ‘함께’하고, 학생들도 같은 목표를 가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달성하기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학습공동체나 학습컨설팅은 많은 대학에서 흔히 운영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함께’ 목표를 이뤄가는 경험’ 자체가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가치라는 점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학습공동체는 단순히 같이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라, 혼자만 잘하는 세상이 아닌, 함께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미리 연습해보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같은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꾸준히 모이다 보면, 때로는 불편함도 생기지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생기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학습컨설팅은 그런 환경 속에서 아직 자신의 방향을 찾지 못한 학생들이 갈피를 잡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마치 어릴 적 놀이에서 ‘깍두기’였던 친구들이 이제는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컨설팅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강점은 더 강하게 만들고 약한부분을 찾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라는 확인과 응원을 전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누군가는 잘하고 있지만 스스로 그걸 몰라서 불안해하고, 또 누군가는 더 잘하고 싶어도 방법이 막막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안해주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프로그램이 단순히 학습 역량만 높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함께’라는 가치, ‘꾸준함의 힘’, ‘자기주도적인 목표 설정’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경험이 되었으면 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온 친구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결국엔 자신만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이 막막하게 느껴질 땐, 먼저 그 길을 걸어본 학습컨설턴트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아요. 위드(With) 프로그램은 누구든 함께할 수 있고,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Q2. 학습공동체 프로그램과 학습 컨설팅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학습공동체의 가장 큰 강점은 ‘학생 주도적 프로그램’이라는 점이에요. 주제도, 방식도, 팀 구성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에게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는 공부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관계가 학습을 밀어주는 구조라는 점이에요. 꾸준히 만나 공부하고, 서로의 설명을 들으며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학습이 훨씬 입체적으로 쌓여요. 그 과정에서 단순한 지식 이상으로, 함께 배우는 힘과 버티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학습컨설팅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는 맞춤형 학습 대화”예요. 갈피를 못 잡은 학생에게는 방향을, 잘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확신과 확장을 줄 수 있어요. 단순한 조언이나 정답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고민하게 만들고, 자기만의 해답을 찾아가도록 돕는 질문 중심의 컨설팅이에요.

또한 이 두 프로그램 모두, 성적 향상이라는 단기적인 목표를 넘어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학습을 통해 삶을 설계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학습공동체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활동보고서를 읽다 보면, 그 안에서 학생들 사이의 내적 친밀감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아요. 또 학습공간을 찾거나 간식을 수령하러 오는 학생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의 장점과 보완점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든, 짧은 만남을 통해서든 저는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배우고 성장해 가는지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저는 모든 활동보고서를 꼼꼼히 읽어보는 편이라 어떤 팀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 어떤 팀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돼요. 학습공동체는 ‘공부’라는 비교적 단순한 주제를 다루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진정성과 꾸준함, 팀워크는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팀이 하나 있었어요.



한 학생이 에브리타임을 통해 학습공동체 팀원을 모집했고, 서로 전혀 모르는 세 명의 학생이 처음 만나 함께 공부시간 달성과 A+라는 공통의 목표를 정하고 한 학기 동안 정말 성실하게 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이 했던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왜 그런지 함께 물어보고 고민해보는 과정 자체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는 학습 방법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팀은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이 늘었고, 앞으로도 혼자보다 함께 공부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는 걸 몸소 느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양한 방식의 스터디도 시도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서로 잘 모르던 사이였지만, 한 학기를 함께 보내며 앞으로도 계속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났다는 자신감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그 중 한 학생을 쿡쿡마켓에서 마주치게 된 적이 있었는데, 여러 활동을 병행하면서도 공부를 성실히 이어가는 모습에 “이 친구는 반드시 잘될 거야”라는 확신 같은 응원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운영을 하며 알게 된 학생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기억하고 응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로 잘 몰라도, 함께 학습하며 관계를 맺고, 누군가와 함께 배운다는 것의 힘을 직접 경험한 학생들이기에 더욱 기억에 남는 팀이었어요. 학습공동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Q4. 위드(With)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성장하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정확한 하나의 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성취감’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참여하는 팀이 워낙 많고 다양하다 보니, 하나로 딱 잘라 말하긴 어렵지만, 굳이 하나를 꼽자면 성취감을 통해 학생들이 가장 크게 성장한다고 느껴요.

혼자든, 함께든 무언가를 이루는 과정 자체가 바로 위드(With) 프로그램의 핵심이잖아요. 서로 다른 생각, 익숙하지 않았던 시선과 환경 속에서 배우고, 느끼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얻어간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개인의 삶과 선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이지만, 결국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힘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느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함께 하는 힘’, 그리고 그 속에서 끝까지 해냈을 때의 성취감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도 작은 걸 꾸준히 해낸다는 것, 그걸 통해 얻는 성취감은 꽤 크다고 생각해요. 학습컨설팅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그걸 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무언가를 해냈다는 경험은 기쁨, 뿌듯함, 안도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도 덜 느끼고, 마음이 안정되며,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전 그렇게 믿어요. 계속해서 성취감을 경험하다 보면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진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요.



Q5. 이 프로그램은 어떤 학생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모든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단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보다, 목표를 향해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는 경험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모두가 느껴봤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혼자서 공부하는 게 어렵게 느껴지거나,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더욱 추천하고 싶습니다.

학점이 조금 부족하든, 남들보다 조금 앞서 있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의 응원이 되어주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경험 자체가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누가 되었든, 용기를 내서 한 번쯤은 ‘함께’해보셨으면 합니다.

Q6. 프로그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이네요.

“함께하고 함께 이룬 경험만큼 오래 남는 향수는 없다”고 말하고 싶네요.

